

문 1.

[정답] ②

[해설]

수입재에 관세 붙이면 가격 오르고 수입량 줄어드는데 생산자는 수입이 줄어드니 이득이고 정부는 세금 수입이 생기니 이득이다. 소비자는 가격 오르니 손해다.

문 2.

[정답] ①

[해설]

자본/노동 비율 보면 X는 2, Y는 4/3으로 X가 크다. X가 자본집약. 요소 부존량에서 자본/노동 비율 보면 A국이 3, B국이 2로 A국이 크다. A국이 자본풍부국.

문 3.

[정답] ①

[해설]

무역장벽과는 상관없다.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④이다.

문 4.

[정답] ③

[해설]

잘 안되고 있다.

문 5.

[정답] ①

[해설]

자본이동 완전 +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소득에 효과가 없다. 달라졌다가도 환율 변화로 인한 순수출 변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.

문 6.

[정답] ②

[해설]

이론적으로는 뭐든지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다.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B국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B국 생산 증가분이 다른 나라 생산 감소분보다 커서 세계 생산량은 증가한다.

문 7.

[정답] ④

[해설]

상대방은 손해를 본다.

문 8.

[정답] ①

[해설]

궁핍화성장의 원인은 교역조건의 심각한 악화이다.

문 9.

[정답] ②

[해설]

헥셔-올린 모형은 규모의 경제와 무관하다.

문 10.

[정답] ③

[해설]

독점적 경쟁에서 나온 모형이다.

문 11.

[정답] ④

[해설]

② 반덤핑관세

③ 긴급수입제한조치

문 12.

[정답] ②

[해설]

지출전환정책은 국산품과 외산품 간 지출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관세, 환율, 수입할당 등이 있다. 보통 환율정책이다.

② 지출변동정책

문 13.

[정답] ①

[해설]

① 소득수지도 포함되어야 한다.

문 14.

[정답] ②

[해설]

재정정책이 효과 크고 통화정책은 효과 없다.

문 15.

[정답] ③

[해설]

지금 보면 한국에서 원화로 금을 1돈 사서 미국에 달러로 팔고 이를 환전하면 10,000원 이득이다. 이는 한국에서 금 수요를 증가시켜 가격을 올리고 미국에서 금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을 내린다.

- ① 원화 수요가 올라가므로 환율 하락 예상
- ② 1,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.
- ④ 저평가된 상태이다.

문 16.

[정답] ④

[해설]

- ① C로부터 수입한다.
- ② 의류는 수입하지 않는다.
- ③ 컴퓨터도 수입하지 않는다.

문 17.

[정답] ③

[해설]

무역창출효과는 무역 장벽이 없어지면서 새로 무역이 생기는 효과이다. 컴퓨터의 경우 B 대상 관세를 없애면 B가격이 15이므로 A가 새롭게 수입하게 된다.

문 18.

[정답] ④

[해설]

무역전환효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더 싼데 이 나라 관세가 없어지면서 무역 상대가 이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이다. 그러니 이를 막으려면 다른 나라 대상 관세도 줄이면 된다.

문 19.

[정답] ④

[해설]

수출국 입장에서는 교역조건 개선이다.

문 20.

[정답] ②

[해설]

$Y=C+I+G+EX-IM$ 식을 정리하면 된다.